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 효능감 및 셀프리더십 간의 관계

이외선*

¹창신대학교 간호학과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among Nursing Students

Lee Oi Sun*

¹Department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 효능감 및 셀프리더십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 23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4년 9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SPSS WIN 18을 이용하여 빈도, t-test, ANOVA,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셀프리더십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감성지능과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감성지능과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셀프리더십을 40.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감성지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이 제언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among nursing students. Subjects were 230 nursing students in South Korea .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from September 1 to 30, 2015, and analyzed using frequencies, t-tests,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Win 18.0. Self-leadership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ademic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Students with higher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ademic self-efficacy showed higher self-leadership.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ademic self-efficacy explained 40.2% of the total variance in self-leadership among nursing students. Therefore, to increase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test programs to ensure an improvement in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ademic self-efficacy among nursing students.

Keywords : Academic self-efficacy, Emotional intelligence,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의 목표는 간호대학생들이 졸업 후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간호핵심역량을 갖추도록 하는데 있다[1].

이에 한국교육평가원[2013]은 간호교육과정을 성과 중심 교육체제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한 간호교육의 질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리더십은 한국교육평가원[2013]이 간호대학생이 졸업시점까지 갖추어야 할 간호핵심역량으로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현장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처리해

*Corresponding Author : Oi-Sun Lee(Changshin University)

Tel: +82-55-250-3174 email: leeosun@daun.net

Received August 18, 2015

Revised (1st August 27, 2015, 2nd September 2, 2015)

Accepted September 11, 2015

Published September 30, 2015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타율적인 성향에서의 리더십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부터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는 자율성을 강조한 셀프리더십이 필요하다[2]. 셀프리더십은 개인의 내적 동기부여에 중점을 두고 자신의 사고와 감정,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율적인 힘으로[3],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대처인 문제 중심 대처를 많이 사용하고[4],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며[4],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5] 나타났다. 또한 셀프리더십이 문제해결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6]으로 나타났으나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의 정도가 중간보다 조금 높은 것[4,5]으로 나타났다. 현재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증진시키기 위한 비교과 활동으로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이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간호교육과정내에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먼저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요인 파악이 필요한데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7]에서 자기효능감, 성취목표동기, 자기주도학습이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는 상태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감성지능은 자신의 감성에 대한 실체와 원인을 인식하고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상황에 적합한 감성으로 조절하여 문제해결과 성과달성을 위해 조절된 감성을 행동으로 표출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다[8].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9]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감성지능이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10]을 알 수 있다. 이는 셀프리더십의 내적동기부여에 자신의 감성을 이해하고, 감성을 조절하고 활용하는 감성지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과 리더십을 본 선행연구[11]는 있으나 감성지능과 셀프리더십의 관계를 본 연구는 없는 상태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학업적 자기 효능감은 학습자가 학습상황과 관련된 과제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12]으로 수행이나 목표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3].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원동력이 있어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어려운 일이 닦쳐도 끈기 있게 과제를 지속한다[13].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4]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셀프리더십이 강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제수행을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셀프리더십의 목표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자율적인 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는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셀프리더십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감성지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셀프리더십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셀프리더십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감성지능과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 효능감 및 셀프리더십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 효능감 및 셀프리더십 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 효능감 및 셀프리더십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감성지능과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 효능감 및 셀프리더십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감성지능과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G도 소재 J시와 C시에 있는 간호학과 1학년과 4학년에 재학 중이면서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간호대학생이다.

표본 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효과크기를 .20로 설정하고, 유의수준 .05, 검증력 .80로 설정하여 G power program으로 계산하였을 때 150명으로 계산되었다[15]. 부실한 응답을 고려하여 총 252명에게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설문지 응답이 부실한 22부를 제외하고 최종 2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감성지능

Wong과 Law[8]가 개발한 Wong &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WLEIS) 도구를 Hwang[16]이 변안한 도구로 4개 하위영역 총 16문항으로 자기감성이해 4문항, 타인감성이해 4문항, 감성조절 4문항, 감성활용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2$ 이었다.

2.3.2 학업적 자기 효능감

Kim과 Park[12]이 개발한 자기 보고식 학업적 자기 효능감 도구로 3개 하위영역 총 28문항으로 자신감 8문항, 자기조절 효능감 10문항, 과제난이도 선호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9 \sim .87$ 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 이었다.

2.3.3 셀프리더십

Manz[3]가 개발한 셀프리더십 측정도구(self-leadership questionnaire, SLQ)를 Kim[17]이 변안한 도구로 2개 하위영역 총 23개 문항으로 행동적 전략(자기 목표설정 3문항, 자기 보상 3문항, 리허설 3문항)과 인지적 전략(자연적 보상의 분별 3문항, 환경조성 2문항, 자연 보상 활동 도입 3문항, 일의 좋은 점에 초점 3문항, 내적 보상에 집중 3문항)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17]의 연구결과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을 위하여 본 연구자가 간호대학생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간호대학생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기간

은 2014년 9월 1부터 9월 30일까지였으며, 배부된 252부의 설문지중 응답이 불성실한 10부를 제외한 230부(91.2%)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 효능감 및 셀프리더십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 효능감 및 셀프리더십의 차이는 t-test 또는 ANOVA, 사후 검정은 Scheffe 검정을 실시하였다.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셀프리더십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감성지능과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은 여학생이 200명(87.0%)으로 많았고, 연령은 20세 이하 129명(56.1%), 21세 이상 101명(43.9%)이었다. 학년은 1학년 137명(59.6%), 4학년 93명(40.4%)이었으며, 종교는 무가 152명(66.1%)이었다. 간호학과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160명(69.6%)으로 가장 높았고, 학업성적은 3.0- 3.99가 161명(70.0%)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230)	
		n	%
Gender	Male	30	13.0
	Female	200	87.0
Age	20≥	129	56.1
	21≤	101	43.9
Grade	1st	137	59.6
	4th	93	40.4
Religion	No	152	66.1
	Yes	78	33.9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Satisfied	160	69.6
	Neutral	63	27.4
	Dissatisfied	7	3.0
Academic credit	4.0≤	54	23.5
	3.0-3.99	161	70.0
	2.0-2.99	15	6.5

3.2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 효능감 및 셀프리더십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은 5점 만점에 평균 3.50점이었으며, 하위 영역 중 자기감성이해 3.7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타인감성이해 3.53점, 감성조절 3.39점, 감성활용 3.36점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 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09점이었으며, 하위 영역 중 자기조절효능감이 3.32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신감 3.23점, 과제난이도 선호 2.77점 순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평균 3.53점이었으며, 하위 영역은 행동적 전략 4.08점, 인지적 전략은 3.48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Level of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self- leadership (N=230)

Variables	Categories	Mean±SD
Emotional intelligence	Self- emotional appraisal	3.73 ± 0.49
	Others' emotionals appraisal	3.53 ± 0.46
	Regulator of emotionals	3.39 ± 0.53
	Use of emotionals	3.36 ± 0.47
	Total	3.50 ± 0.39
Academic self-efficacy	Confidence	3.23 ± 0.65
	Efficacy for self confidence	3.32 ± 0.43
	Task diffcacy	2.77 ± 0.53
	Total	3.09 ± 0.36
Self-leadership	Behavioral strategies	4.08 ± 0.62
	Cognitive strategies	3.48 ± 0.45
	Total	3.53 ± 0.43

3.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셀프리더십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은 연령, 간호학과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연령이 21세 이상이 20세 이하보다 감성지능이 높게 나타났으며($t=-7.30, p=.040$), 간호학과 만족도에서는 만족한 군과 만족하지 못한 군이 보통군 보다 감성지능이 높게 나타났다($F=3.41, p=0.16$).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년, 간호학과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1학년보다 4학년이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t=-3.02, p=.003$), 간호학과 만족도에서 만족한 군과 만족하지 못한군이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다($F=4.78, p=.009$).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은 학년, 간호학과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보다 4학년이($t=-2.78, p=.006$), 간호학과 만족군이 만족하지 못한 군($F=5.20, p=.006$)보다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4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 효능감 및 셀프리더십 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 효능감 및 셀프리더십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감성지능은 셀프리더십($r=.543,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학업적 자기 효능감은 셀프리더십($r=.477,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

Table 3.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self- Leadership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230)

Variables	Categories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Self- leadership		
		Mean ± SD	t or f	p	Mean ± SD	t or f	p	Mean ± SD	t or f	p
Gender	Male	3.47 ± 0.46	-0.46	.641	3.14 ± 0.28	0.74	.450	3.44 ± 0.50	0.49	.621
	Female	3.51 ± 0.38			3.09 ± 0.37			3.40 ± 0.46		
Age	20≥	3.49 ± 0.36	-0.73	.040	3.03 ± .36	-3.20	.858	3.45 ± 0.40	-3.39	.142
	21≤	3.53 ± 0.43			3.18 ± .35			3.64±.44		
Grade	1st	3.49 ± 0.38	-0.57	0.568	3.04 ± 0.35	-3.00	.003	3.47 ± 0.42	-2.78	.006
	4th	3.52 ± 0.41			3.18± 0.36			3.62 ± 0.43		
Religion	No	3.49 ± 0.40	-0.57	0.568	3.09 ± 0.37	-0.55	.579	3.52 ± 0.44	-0.54	.588
	Yes	3.52 ± 0.37			3.11 ± 0.34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Satisfied ^a	3.53 ± 0.42	3.41	.035	3.14 ± 0.35	4.70	.009	3.59 ± 0.42	5.20	.006
	Neutral ^b	3.40 ± 0.32			2.98 ± 0.37			3.39 ± 0.40		
	Dissatisfied ^c	3.45 ± 0.29			3.15 ± 0.33			3.40 ± 0.54		
		<i>Scheffe</i> a>c>b			c>a>b			a>c>b		
Academic credit	4.0≤	3.59 ± 0.33	2.69	.126	3.15 ± 0.39	0.86	.424	3.58 ± 0.40	0.71	.491
	3.0-3.99	3.48 ± 0.42			3.08 ± 0.36			3.51 ± 0.45		
	2.0-2.99	3.40 ± 0.26			3.03 ± 0.29			3.59 ± 0.27		

업적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s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self-leadership (N=230)

Variables	EI	ASE
EI	1	.288
ASE	.288	1
SL	.543	.477

EI =Emotional Intelligence, ASE = Academic Self-Efficacy, SL = Self- Leadership.

3.5 감성지능과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셀프리더십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난 감성지능과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예측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한 결과 Durbin Watson 값은 2.089으로 나타나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차한계가 .917로 1.0이하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가 1.091로 기준이 10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예측변수로 하여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설명하는 선형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78.01, p<.001$). 셀프리더십에 감성지능($\beta=.442, p<.001$)이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셀프리더십을 29.2% 설명하였다. 이후 학업적 자기 효능감($\beta=.350, p<.001$)이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셀프리더십을 11.2% 추가 설명하였다. 이들 두 변수에 의한 셀프리더십에 대한 총 설명력은 40.2 %였다[Table 5].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Self- leadership (N=230)

Variables	β	R ²	CumR ²	t	p
Constant				2.313	.022
EI	.442	.295	.292	8.290	<.001
ASE	.350	.407	.402	6.557	<.001
$F=78.01, p<.001$					

EI =Emotional Intelligence, ASE = Academic Self-Efficacy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 효능

감 및 셀프리더십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감성지능과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4년제 간호학과 1학년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으로 감성지능이 평균 3.50점(범위 1-5점)으로 중간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로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Song과 Chae의 연구[18] 5.10점(범위 1-7점, 5점으로 환산시 3.64점), Lee 등의 연구[19] 3.55점보다는 낮고,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와 Gu의 연구[20] 3.39점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21] 감성지능이 높게 나타나 대상자의 학년 차이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나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하위영역에서는 자기감성이 해와 타인감성이해가 높고, 감성조절과 감성활용이 낮게 나타나 선행연구결과[19-21]와 유사하다. 간호대학생의 감성조절과 감성활용을 향상시킬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의 차이는 연령과 간호학과 만족도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연령이 많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22,23]. 간호학과 만족군이 간호학과 만족하지 못한 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19-21] 결과와 일치한다. 감성지능이 4학년이 1학년보다 감성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간호교육과정에서 감성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적용을 권장하며 추후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평균 3.09점(범위 1-5점)으로 중간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로 간호대학 1학년부터 4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Jeong의 연구[24] 3.23점, Kim과 Park의 연구[25] 3.21점, 간호학과 1학년을 대상으로 한 Han의 연구[13] 3.81점, 전문대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Park의 연구 [25] 3.21점 보다 낮고 전문대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Sim과 Oh의 연구[26] 103.5점(범위 28-168, 5점 환산시 3.08)과 유사하였다. 하위영역에서는 자기조절효능감이 가장 높았고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 순으로 나타나 선행연구[25] 결과와 일치 하였으나, 과제난이도 선호가 높고 자신감이 가장 낮았던 Sim과 Oh의 연구 [26]와는 차이가 있었다. 과제난이도 선호는 개인이 어떤 수행상황에서 어떤 수준의 난이도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과제난이도 선호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자

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도전적인 상황을 두려워하고 피하며 자기가 잘 통제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만 선택하여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에게 다양한 도전적인 과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 효능감은 학년, 간호학과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4학년이 1학년보다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간호학과에 불만족군과 만족군이 보통보다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나 선행연구에서는 성별[26]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평균 3.53점(범위 1-5점)으로 중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Manz[3] 도구를 사용하였지만 문항수가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우나 3년제와 4년제 간호대학 전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3.59점[27], 3.51점[28]과는 유사하고, 1학기 이상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년제 2,3학년, 4년제 3,4학년 대상으로 한 연구[29] 3.72점, 3년제 3학년과 4년제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5] 3.70점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하위영역에서는 행동적 전략이 높고 인지적 전략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27, 29]에서 행동전략인 자기보상, 자기기대, 리허설, 목표설정이 높고, 인지적 전략인 자기비판, 건설적 사고가 낮게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인지적 전략은 일 자체가 주는 즐거움을 파악하고 이를 강화하도록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간호대학생에게 인지적 전략 부분의 셀프리더십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은 학년, 간호학과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선행연구결과[27]와 일치하며 전공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인 Han과 Yu의 연구[27]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학년에 따라 셀프리더십이 높게 나타나 학습이나 교육을 통해 셀프리더십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학업적 자기 효능감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본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초등학교 6학년을 대

상으로 한 선행연구[30]에서 감성지능과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유사개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과 자기 효능감의 관계를 본 선행연구[23]에서 이 두 변수 간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간호대학생이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감정을 조절하여 자기효능조절감이 높아지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긍정적 감정을 활용하여 자신감이 증진되고, 과제난이도 선호를 향상시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감성지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셀프리더십을 40.2%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감성지능과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셀프리더십을 설명하는 회귀분석 결과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감성지능과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셀프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예측요인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 효능감, 셀프리더십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감성지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중 감성지능이 셀프리더십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셀프리더십을 29.2% 설명하였다. 이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중학생 1-3학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1]에서 감성지능이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셀프리더십은 자기 스스로 성취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 정한다거나, 성취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스스로 비판하고 실패의 원인을 찾아보는 등 자신으로 하여금 높은 성과를 올리도록 이끌어주는 자율적인 힘으로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자기의 감정을 잘 이해하여 자기 감정을 관리하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시키고 긍정적인 감성을 활용하기 때문에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학업적 자기 효능감은 감성지능이 셀프리더십을 설명한 이후 11.2%의 설명력을 추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셀프리더십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결과[25]에 의해 지지된다. 그러나 Lee[14]의 선행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의 행동

적 전략과 인지적 전략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셀프리더십의 관계의 방향을 규명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의 제한점을 보면 간호교육과정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 효능감 및 셀프리더십 간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간호학과에 입학학년인 1학년과 졸업학년인 간호학과 4학년을 연구대상으로 편의표집하여 연구결과를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학년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간호대학의 수와 지역을 확대하고 확률표집을 하여 반복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셀프리더십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 확인 되었으므로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해 감성지능과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 효능감 및 셀프리더십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감성지능과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감성지능, 학업적 자기 효능감 및 셀프리더십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감성지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설명력은 40.2%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할 것과 셀프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예측요인에 대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Y. S. Lee, S. H. Park, J. K. Kim,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 College life Satisfaction", *The Korea Contents Society*, 14(6), pp.229-240, 2014.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4.14.06.229>
- [2] G. A. Seo, S. O. Chang, K. H. Cho, I. A. Kim, S. J. Lee, "The Relation between Self-leadership and Outcome of Nursing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2(1), pp.151-158, 2006.
- [3] Manz, C. C.(1998). "Mastering Self-leadership: Empowering Yourself for Personal Excellence",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 [4] M. A. Park, "Self-leadership, Stress on Clinical Practice, and Stress Coping Styles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 University, 2009.
- [5] B. M. Seo, "Factors Affecting Clinical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je University, 2014.
- [6] J. H. Kim, M. K. Park, "Factors Influencing the Process of Problem Solving in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1), pp.34-42, 2012.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1.034>
- [7] E. J. Kim,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Achievement Goal Motivation, Self-Directed learning,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of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4(12), pp.303-326, 2014.
- [8] C. S. Wong, & K. S. Law,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13(3), pp.243-274, 2002.
DOI: [http://dx.doi.org/10.1016/S1048-9843\(02\)00099-1](http://dx.doi.org/10.1016/S1048-9843(02)00099-1)
- [9] Y. H. Kang, "The Effect of Family Cohes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Self-leadership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2013.
- [10] Goleman, D. (1998). "Working with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 [11] Duygulu S, Hicdurmaz D, Akyar I. "Nursing students' leadership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Turkey", *Journal Nursing Education*. 50(5), pp. 281-285 2011.
DOI: <http://dx.doi.org/10.3928/01484834-20110130-07>
- [12] A. Y. Kim, I. Y.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9(1), pp.95-123, 2001.
- [13] S. J. Han,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attitude matur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25(5), pp.559-566, 2013.
DOI: <http://dx.doi.org/10.7475/kjan.2013.25.5.559>
- [14] Y. J. Lee,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 Self-leadership level on Campus-life satisfac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Academic self-efficacy", Unpublished

-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12.
- [15] F. Faul, E. Erdfelder, A. G. Lang, & A. Buchner,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 pp.1149-1160, 2009.
DOI: <http://dx.doi.org/10.3758/BRM.41.4.1149>
- [16] P. J. Hwang, "A Study on the Influence of an Employee's Emotional Intelligenc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2007.
- [17] M. J. Kim, "An Inquiry into Learner Factors Influencing the Self-Leadership Development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07.
- [18] J. E. Song, H. J. Chae, "Differences in Stress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according to Emotional Intelligen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4), pp. 502-512, 2014.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4.502>
- [19] O. S. Lee, M. O. Gu, M. J. Kim, "Influenc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 pp.380-388,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380>
- [20] O. S. Lee, M. O. Gu.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e &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6), pp.2749-2759,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6.2749>
- [21] E. J. Shin, Y. S. Park, "Emotional Intelligence, Ego Resilien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4(1) pp.5636-5645,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11.5636>
- [22] J. Por, L. Barriball, J. Fitzpatrick, & J. Roberts, "Emotional intelligence: Its Relationship to Stress, Coping, Well-being and Professional performance in Nursing students", *Nursing Education*, 31. pp.855-860, 2011.
DOI: <http://dx.doi.org/10.1016/j.nedt.2010.12.023>
- [23] K. S. Jeong,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Ego-resiliency and the Stress on Clinical Practices", *Korea Academy of Care Management*, 10, pp.165-183, 2013.
- [24] S. K. Jeong, "Effects of Nursing Student's Academic Failure Tolerance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12), pp. 7160-7169,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12.7160>
- [25] S. H. Kim, S. Y. Park, "Factors Influencing on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3), pp. 1577-1565,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3.1557>
- [26] M. J. Sim, H. S. Oh, "Influence of Self Efficacy, Learning Motiv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on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12(6), pp. 328-337, 2012.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2.12.06.328>
- [27] S. H. Han, H. S. Yu, "College Women's Self-leadership,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Self Disclosure in an A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1), pp. 131-140, 2012.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1.131>
- [28] T. J. Jang,, "The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Satisfaction in Major, and Self-leadership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2014.
- [29] N. Y. Yang, S. Y. Moon,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7(2), pp.216-225, 2011.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1.17.2.216>
- [30] H. Y. Kim, "Verification of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Creative Personality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12.
- [31] Y. H. Kang, "The Effect of Family cohes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Self leadership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2013.

이 외 선(Oi-Sun Lee)

[정회원]



- 2001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4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감성지능, 성인간호